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사도)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연중 시기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마태 5,14)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 시 (본당)
	주일 17 시 30 분 (공소)
평일	매주(화) 20 시
	매주(수) 11 시
	매월 첫(목) 19 시
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토) 11 시
성시간	매월 첫(목) 19 시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9 시 30 분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 시 30 분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토) 10 시
울뜨레이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적립금액(\$76,263)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 2/8(일) 연중 제 5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 2/10(화)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 미사 (20:00)
- ▶ 2/11(수) 연중 제 5 주간 수요일 미사 (11:00)
- ▶ 2/15(일) 연중 제 6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설 합동 위령 미사

2/15(일) 주일미사를 설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미사 예물을 받습니다.
마감: 오늘(2/8), 전례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지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 미사(2/18(수) 19:30)에 사용될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복도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2/15(일)

◎ 제병, 제주, 제대초 봉헌

21명이 \$1,650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성 루카>입니다.
다음주는 <성녀 수산나>입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19:30)

- | | |
|--|-----------|
| 2/20 독서해설단 (해설: 신부님) | 2/27 사목회 |
| 3/ 6 꾸리아/바뇌 기도회 | 3/13 울뜨레이 |
| 3/20 주일학교 자모회/성가대 | 3/27 복사단 |
| 4/ 3 구역장 (해설: 신부님) | |
| * 각 단체는 해설, 십자가 복사 1명, 초복사 2명과
십자가의 길 내용을 정해서 전례분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2026년 함께 드리는 기도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밤 9 시 주모경 바치기

단체소식

◎ 시설분과

시설분과에서 함께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시설분과장 정종만 루카 289-219-2204

◎ 꾸리아

오늘(2/8) 1 시에 꾸리아가 있습니다.

◎ 꽃동네 1 박 2 일 사순피정

- * 강사: 신상현 야고보 수사님(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 * 일시: 2/21(토) 오전 9 시~2/22(일) 오후 3 시
- * 접수비: \$250 (선착순 35 명)
- * 마감: 2/15(일)
- * 문의: 이상은 엘리사벳 289-933-0242

◎ 가톨릭성서모임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반 모집>

- 4~6명 그룹으로 매주 1회 회상을 통해 나눔 진행.
- * 창세기 반: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 * 탈출기 반: 창세기 공부를 마치신 분
 - * 마르코반: 창세기와 탈출기 공부를 마치신 분
 - * 요한반: 창세기, 탈출기와 마르코 공부를 마치신 분
 - * 접수 기간: 2/15 * 문의: 이상은 엘리사벳

공소 소식

◎ 공소 재정보고

금일(2/8) 미사 후 재정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감사합니다: 빨랑까: \$200 김경래 말따

친교식사 및 제대꽃

오늘 친교식사는 6 구역에서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5: 7 구역 3/1: 1 구역 3/8: 4 구역

구역 모임 소식

- 이달의 묵상 주제 (마태 4,1-11) '1 구역: 2/28(토) 친교실
식사준비 후
2 구역: 2/21(토) 친교실 11:00
3 구역: 2/21(토) 친교실 12:00
4 구역: 2/21(토) 황창환 알비노 18:00
5 구역: 2/21(토) 하태성 베드로 18:00
6 구역: 2/ 8(일) 친교실 식사 후
7 구역: 2/28(토) 황미옥 레지나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 주소서. ◎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58 명)			
주일현금	\$1,415	교무금	\$1,705
감사현금		성전건립	

신학생 양성기금 \$330

감사합니다

복사복(여름용) 도네이션: 송현경 예바

◎ 2 월 축일자 (10 명)

- 2/ 4 요안나(임성신)
- 2/ 5 아가다(주소연, 이금자)
- 2/ 8 요세피나 (박지나)
- 2/10 스콜라스티카(강영희)
- 2/16 아카페(오애선)
- 2/18 요한 프라 안젤리코(정이안)
- 2/26 이사벨라(이지민, 류혜진), 알렉산데르(이시훈)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2/ 8	임연신 비아	최다혜 플로라,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2/ 15	박규혜 카타리나	최다인 안나,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에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2/ 22	권희진 요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최다인 보나	1 독서: 최아현 베로니카 2 독서: 최다혜 플로라	최다인 안나 이준우 바오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장현우 안드레아 신부
대천성당 주임

소금과 빛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음식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빛 또한 어둠을 밝혀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고 색을 구별하게 합니다. 나그네의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고, 암흑 속에서 두려움에 떨 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정과 부패로 상처투성이인 세상을 정화하고, 살 맞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두운 세상에 평화와 희망의 빛을 밝혀주고,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와 갈등으로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희망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이들에게 소금과 빛으로서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담긴 이기심과 질투심, 미움과 원망과 분노, 용서하지 못해 남겨진 상처들과 아픔들로 암흑으로 내몰릴 때,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한심스러워하며,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갈 맛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 스스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겨 다시 일어서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자신이 가진 짠 맛을 아무에게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 다른 무언가에 스며들어야 그것을 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태를 잃고 자신의 짠 맛을 내어 놓을 때, 그 소금은 소금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빛 또한 자신의 밝음을 뿐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태워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 역시,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냉을 흡족하게 해주는 참된 단식을 실천할 때,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빛 안에 머물도록, 그리고 세상을 그 빛으로 초대하도록 명하십니다.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으려 노력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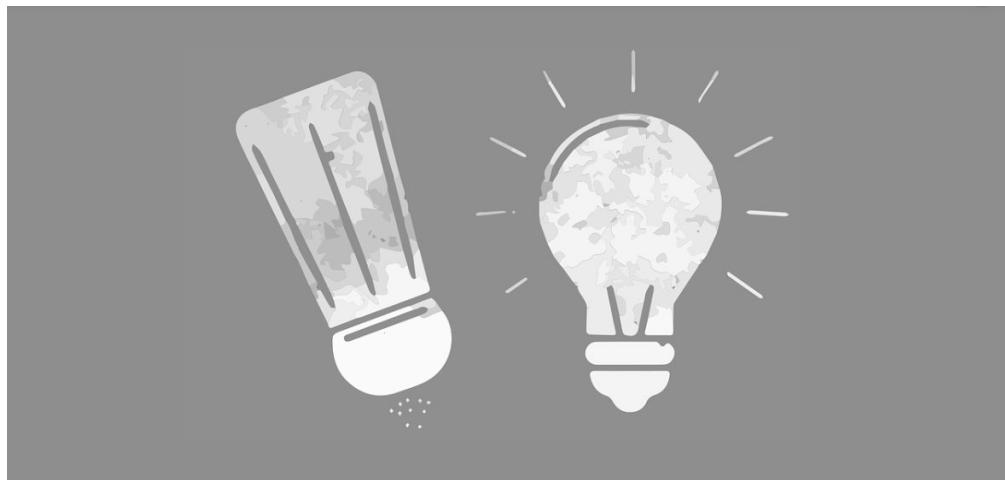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5 주일 (2026. 2. 8.)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8,7-10

화답송 시편 112(111),4-5.6-7.8 ㄱ과 9(◎ 4 ㄱ)



후렴.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빛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2,1-5

복음 환호송 요한 8,12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3-16